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9일(화) 총 3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연구원	담당자	• 정밀검사과장 임지훈 ☎440-5481 • 담당자 홍성희 ☎440-5483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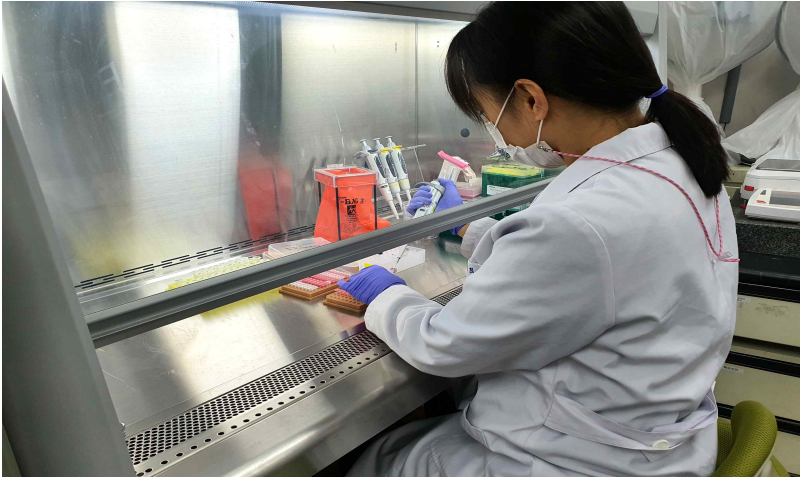
**인천지역 유통 한우고기 DNA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**  
- 22개 업체에서 유통되는 55건에 대해 한우 확인 검사 실시 -  
- 2009년 검사 시스템 구축, 매년 꾸준한 검사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관내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 55건을 대상으로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밝혔다.
- 이번 확인 검사는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젓소, 육우와 수입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으며, 인천 소재 대형마트, 정육점 등 22개 업체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 총 55건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됐다.
- 확인 검사는 소에서 추출한 유전자의 본체(DNA)에서 소가 갖고 있는 한우의 유전적 특징과 털의 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우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, 검사결과 검사대상 모두가 한우인 것으로 판정됐다.

- 한편,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한우확인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매년 꾸준한 검사를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.
- 최근 3년 동안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474건의 한우 확인검사를 실시해 3건의 한우 둔갑 소고기를 적발했으며,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군·구로 하여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.
-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향 방문 및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한우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”며, “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참고자료> 관련 사진

<한우확인검사 사진>



<한우확인검사 결과 확인 사진>

